

제 목	국 문	연 축전지 사업장의 질환 요주의자 및 유소견자의 사후관리실태 연구		
	영 문	Follow-up Management State of Lead Battery Workers in Periodic Health Examin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리갑수 ¹ , 황보영 ¹ , 김용배 ¹ , 김화성 ¹ , 함정오 ¹ , 이성수 ¹ , 안규동 ¹ 이병국 ¹ , 허정 ²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¹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²		
	영 문	Gap Soo Lee ¹ , Young Hwangbo ¹ , Yong Bae Kim ¹ , Hwa Sung Kim ¹ , Jung Oh Ham ¹ , Sung Soo Lee ¹ , Kyu Dong Ahn ¹ Byung Kook Lee ¹ , Jung Hur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ayng University ¹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²		
분 야	환 경	발 표 자	리 갑 수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연 업종별 보건관리 대행기관에서 보건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연 축전지 사업장의 일반 건강진단 및 연 특수건강진단 결과 C 이상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의 사후관리 실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하여 조사 연구함으로써 업종별 보건관리 대행을 받고 있는 연 취급 사업장의 근로자들의 보건관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의 바람직한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 연구를 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연 업종별 보건관리대행 계약을 하여 근로자의 보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5개 연 축전지 회사의 전체 근로자들 중 1995년에 일반 건강진단 및 특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시행한 전체 1,919명의 근로자중에서 질환 요주의 이상(C와 D)의 판정을 받은 293명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반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근로자들의 설문 결과와 대조 분석하였다. 조사 변수들은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으로 직업력, 1일 평균 작업 시간, 직종, 상주 보건 간호사 유무, 건강진단에 대한 결과, 건강진단 구분, 진단 내용, 진단 결과의 통보, 진단 결과에 대한 이해, 진단 결과에 대한 교육,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 사후관리 실행 유무, 보건관리 대한 인식 및 태도, 건강진단의 필요성, 건강진단에 대한 평가, 작업현장의 유해인자에 대한 인지, 보건관리에 대한 평가, 생물학적 모니터링에의 참가 의사 등을 보았고, 자료 처리 통계 분석은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빈도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각 조사 변수간의 χ^2- test를 하였고, 사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다.</p>				

3. 연구결과

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았다고 한 근로자는 대상자 293명중 252(86.0%)명이었고,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았었다고 한 근로자는 116(39.6%)명이었고, 건강진단 결과를 알고 있는가에 대하여는 207(70.6%)명의 근로자들이 알고 있다고 하였다. 교육이나 설명을 들었다고 한 근로자 116명중에서 건강진단 결과를 알고 있다고 한 근로자들은 102(87.9%)명이고, 교육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 근로자 177명중에서 알고 있다고 한 근로자들은 105(59.3%)명이었다.

자신의 건강진단 결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근로자들은 일반 질환 D는 19명중 11(57.9%)명, 일반 질환 C 판정을 받은 228명중 101(44.3%)명, 직업성 질환 C 판정을 받은 67명중 19(28.4%)명이었다.

건강진단 실시 후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가 있었다고 한 근로자는 조사 대상 근로자 293명 중 71(22.6%)명으로 사후관리 조치 내용은 추적관찰이라고 한 근로자가 26(36.6%)명, 근무중 치료라고 한 근로자가 22(31%)명, 작업부서 전환이라고 한 근로자가 6(8.5%)명, 그리고 휴직이라고 한 근로자 5(7.0%)명이었다.

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241(82.3%)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현재의 건강진단에 대한 평가에서는 107(36.5%)명은 건강진단이 실질적이라 하였고, 132(45.1%)명이 형식적이라 하였다.

연을 작업부서의 유해인자라고 한 근로자는 150(51.2%)명이었고,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는 226명 중 141(59.8%)명이 연을 작업부서의 유해인자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현재 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관리에 대하여 조사 대상 근로자 293명중 68(23.1%)만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하였고, 155(52.9%)는 보통이라고 하였으며, 33(11.3%)명은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연 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매달 Zinc Protoporphyrin test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근로자 293명중 184(62.8%)명이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하였고, 85(29%)명은 가끔 참가하겠다고 하였고, 하지 않겠다고 한 근로자는 24(8.2%)명이었다.

사후관리 조치의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설명 변수는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자신의 건강 상태의 평가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의 유무 등이었다.

4. 고찰

연 업종별 보건관리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후 사후관리 실태와 근로자들의 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조사의 결과 근로자들은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진단 결과, 교육 설명)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진단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었으며, 연중독을 위한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었음에 반해 현재의 건강진단에 대하여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의 연 업종별 보건관리가 주로 생물학적인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